

'19.5조 펀다' 690만 명에 최대 500만원...노점상·대학생 첫 혜택

코로나 충격에 2년 연속 1분기 추경...역대 3번째 규모

업종별 100~500만원 차등...사업장 많으면 1천만원까지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대학생 1만 명 250만원 장학금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또 다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카드를 꺼냈다.

작년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추경수에도 코로나19의 기세는 여전하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충격 속에 민생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역대 3번째 규모인 15조원에 더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이번 4차 피해지원 대책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기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 역대 3번째...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3조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최근에도 하루 400명 인파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방역 상황이 장기화되자 추가로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추경 규모로 역대 3번째...1년 사이 추경으로만 86.3조 투입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연휴 전날인 26일 기준으로 양파는 평년 대비 62.7%, 쌀(20kg)과 계란(특란 30개)은 각각 30.1%, 44.1%, 특히 대파는 크게 올라 '금(金)파'가 됐다.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물가 상승 지속, 밥상 물가 비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계속된 취업자 감소 등 일자리 충격을 막기 위한 고용 대책과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한 방역 대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작년부터 3월부터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 4차(7조8000억원)에 이번 추경까지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통해 86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인여금 2억6000억원, 한은 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5조1000억원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우선 확보해 국제발행 규모를 10조원 이하로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기정예산 패키지는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최대한 2분기 내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100만~500만원 버팀목 플러스에 전기요금 감면도...5개 유형별 차등 지급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이다.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 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수준을 5개 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지급했었다.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한 사람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도 각 사업장이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배까지 증액 지급한다. 계속 연장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경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깎아 준다. 감면

폭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이며, 업종별로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다수 사업장 운영시 10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1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점상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원...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250만원 장학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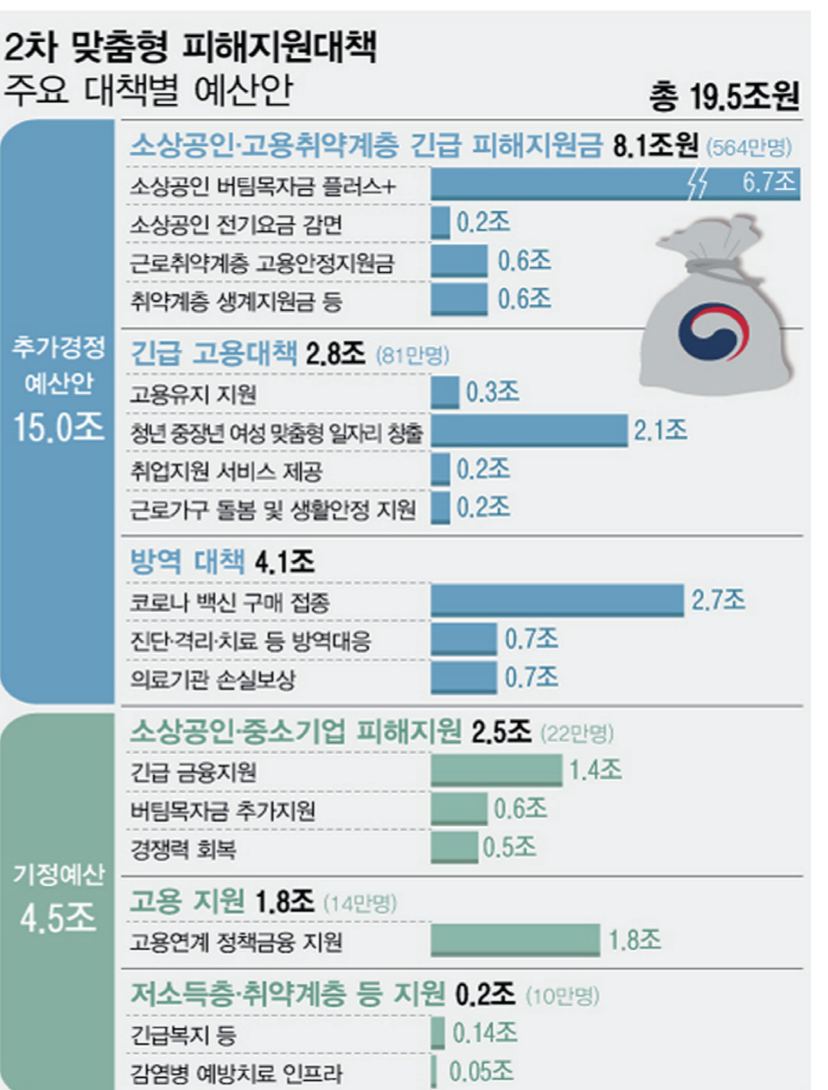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50만 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 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 지급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한다.

일자리·방역 대책에도 6.9조 반영...나뉠뎠 1000조 육박



총 2조8000억원을 반영한 긴급고용 대책에서는 집합제한·금지 업종 20만 개소에 대해 휴업·휴직수당 90% 특례지원하던 것을 3개월 연장한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기존 3분의 2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할 계획이다.

방역 대책으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7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는데 4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한다.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 격리치료, 생활 지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을,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데 7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1년 사이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역시 더욱더 악화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아 50%를 목전에 뒀다. 국가채무 역시 1년 사이 160조원 넘게 증가하며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다. 서선욱기자

카카오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 친구 초대시 '클레이' 지급

1월 첫 이벤트 통해 약 10만명 신규 가입자 확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Klip)에서 오는 8일까지 가상자산 '클레이(KLAY)'를 지급하는 친구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라운드X는 지난 1월 100만 클레이 보상 한도로 1차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 약 1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에 대한 고개 감사 이벤트로 이번에는 보상 한도를 총 150만 클레이로 늘렸다.

친구 초대는 클립 내 친구 초대 기능이나 초대 링크 공유를 통해 가능하다. 초대를 통해 친구를 가입

시킨 회원에게는 1클레이, 초대 받은 친구에게는 2클레이가 실시간 지급된다. 초대 보상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그라운드X는 모바일 앱 기반 아트테크 플랫폼 테사(TESSA)와 협업해 친구 초대로 가입한 신규 회원 선착순 2만명에게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 카드를 추가 증정한다.

미국 뉴욕 출신의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해링(Keith Haring, 1958~1990)의 미술품을 분할 소유할 수 있는 교환권을 NFT 기반 디지털 카드로, 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Klaytn)'에 영구 저장된다. 교환권은 테사 앱에서 클립 연동 후 교환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초대 성공 수가 가장 많은 상위 50명에게는 최대 3000 클레이를 추가로 제공한다.

혜택 대상 유저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상위 20명을 선정해 추가 클레이를 증정한 것보다 늘렸다.

이벤트 기간 중 150만 클레이가 일찍 소진돼도 상위50명을 선정하기 위한 순위 집계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클립에는 클레이와 NFT 카드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한 아이템이나 쿠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최이슬기자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 봄맞이 5% 특별할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농가 위해 기획

경북 의성군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에서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기획됐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행사 기간 중 전 품목 5% 할인, 무료배송, 신규회원 3000원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쇼핑몰 '의성장날'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06년 의성군이 개설했다.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019~2020년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111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엄선한 고품질의 지역 농특산물을 저가 래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사과, 마늘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고추장, 흑마늘가공품, 홍화 등 총 63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 중이다.

특히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의성 흑마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의성마늘소, 기력회복에 좋은 봉어진액 등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매일유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 선정

유가공부문 조사 등에서 우수한 평가 받아

매일유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유가공부문에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약 1만3000명의 제계 인사, 투자 분석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가공부문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장 변화에 대한 혁신활동을 평가하는 혁신 가치와 기업·제품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 항목에서 경쟁 기업 대비 크게

앞섰다. 이밖에 사회공헌, 친환경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매일유업은 2018년 본 조사에서 처음 1위로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유가공부문 4년 연속 선정은 매일유업이 처음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그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은 만큼, 앞으로도 유가공 산업을 선도하고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2004년부터 KMAC에서 조사·발표하고 있다. 기업 전체 가치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민정기자